

같이 보기

: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의도치 않게 극장과는 거리두기를 하며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작년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밖은 위험한 요즘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집에서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한편 보는 건 어떨까?

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 김현범 선임과장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목 그대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일병(주연: 맷 데이먼)이 적진 한 가운데 투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 상황에서 미국 장군은 “라이언 일병을 반드시 구출해서 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특명을 내린다. 이 임무를 맡은

밀러 대위(주연: 톰 행크스)는 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적진 한 가운데로 침투하여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속에서 대원들의 희생과 노력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되지만 라이언 일병은 동료들과 함께 전투 중에 있는 마지막 다리를 사수해야 한다며 혼자서 전장을 이탈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20세기 이후 최고의 전쟁영화로 꼽히는 수작 중의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이후에 개봉되는 많은 전쟁 영화, 게임 등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초반 상륙작전과 영화상의 내용 구성을 모티브로 많이 참고 하였다고 한다. 세계적인 거장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과 톰 행크스, 맷 데이먼 등 유명한 배우들의 열정과 관심 속에 영화로 만들어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의 내용 전개는 지금 시대와 다르게 조금 단조롭게 보일 수 있으나 영화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나 교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미국 할리우드만이 가지는 큰 스케일과 SF 액션과 같은 비주얼을 보여주는 영화다. 실화를 바탕으로 두는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긴 런닝타임이 결코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뤄졌던 '전쟁'이라는 참혹한 단어 속에서 이 영화는 전쟁의 잔혹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위대한 감동과 서사적인 드라마를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20년이 지나도 이 영화만큼 뛰어났던 전쟁영화는 개인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 내내 지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영화였다. 🍿

